

<2015년 1월 25일 주일말씀> 매우 중요

생명의 뜻

본 문 요한복음 14장 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
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오늘은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,
희망을 가지고 궁금해할 것입니다.

오늘 전할 말씀은

성자께서 <2015년 1월 1일 새벽에 주신 말씀>입니다.

작년에는 ‘수석 네 개를 주워 횡재하는 꿈’을 주시고
그에 따라 ‘많은 보화들’을 얻게 하셨는데,
올해는 ‘무슨 꿈을 주실까?’ 희망했습니다.

그런데 성자는 ‘꿈’을 안 주시고 ‘말씀’을 주셨고,
이 말씀이 ‘올해 희망의 꿈’이라고 하시며
섭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.

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,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선생도 2014년 12월 31일

여러분이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드리고,
2015년 1월 1일 새벽까지 있다가 이어서 새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

◆ 이때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하늘의 운을 타야 된다.

땅의 운이 있고, 하늘의 운이 있다.

지금은 <성자 시대>이니, ‘나 성자의 운’ 을 타야 된다.

그 운은 ‘이 땅의 나의 육’ 을 통해 나타내고

‘나의 육’ 을 통해 보내 준다.” 하셨습니다.

(* 그리고 성자는

‘그 육을 통해 주시는 운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.

중요한 말씀, 화면을 보면서 듣겠습니다.) <영상1> 중요

◆ 나 성자가 ‘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주는 운’ 은

<바다의 배의 돛>과 같고,

<공중의 독수리의 날개>와 같고,

<땅의 자동차의 엔진>과 같다.

◆ 자기 노력과 수고, 자기 재능과 능력은 ‘자기 운’ 이다.

이는 마치 <돛이 없는 배>와 같고,

<날개가 없는 독수리>와 같고,

<엔진이 없는 자동차>와 같다.

핵심이 없으니 ‘원하는 것’ 을 얻지 못한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‘보낸 자’ 를 통해 ‘운’ 을 주면
너희 모두가 <내가 원하는 목적지>까지 능히 갈 수 있다.

(하고,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

- ◆ 2015년의 꿈을 이루는 말씀입니다.

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‘하늘의 운’ 을 준다고 하십니다!

그 <운>은 ‘성자’ 이고 ‘구원자’ 이며,

그 <운>을 ‘배의 돛, 독수리의 날개, 차의 엔진’ 으로 비유했습니다.

<끝>

- ◆ <뜻>은 ‘구원자’ 요,

<근본>은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 이십니다.

여기서 <뜻>은 ‘삼위가 주시는 운’ 입니다.

고로 ‘하늘의 운을 탄 자’ , 곧 ‘주의 운을 탄 자’ 는

그 ‘운’ 을 타고서 <목적한 희망의 장소>로 능히 가게 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노 젓는 배>와 <돛이 달린 배>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?
<땅>과 <하늘>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 중요

- ◆ <돛이 달린 배>는

‘바람’ 으로 가니 힘들지 않고, 파도를 헤치고 갑니다.

그러나 <뚝 없이 노 젓는 배>는

‘손과 팔’ 로 저어서 가야 하니
힘들어서 머나먼 항해를 할 수 없고,
파도에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.

- ◆ <손으로 노를 젓는 것>은 ‘자기 힘과 능력과 재능’ 이고,
<뚝을 달고 가는 것>은 ‘성자와 땅의 구원자의 운’ 입니다.

- ◆ ‘주의 뚝’ 을 달지 않고 손으로 노 저어 가는 자는 힘들게 고생하며
‘멀고 먼 365일의 신앙의 항해, 삶의 항해’ 를 해야 됩니다.

고로 힘들어서 ‘1년의 항해’ 를 다 하지 못하고
‘자기 목적과 뜻’ 을 이루지 못합니다.

- ◆ 그러나 ‘주의 뚝’ 을 달고 가는 자는
쉽게 ‘365일의 신앙의 항해, 삶의 항해’ 를 하여 목적지까지 가고,
그 힘으로 ‘자기 목적과 뜻’ 도 이룹니다. <끝>

- ◆ 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
노력하고, 연구하고,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고,
갖은 생각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.

하지만 힘이 안 들고, 고생을 덜 하고, 쉽고 편하게 살기가
정말로 어렵습니다.

- ◆ 좋은 환경에 살고, 좋은 집에서 살고,
쉽게 돈을 벌어서 쉽고 편하게 인생 사는 것이

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.

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여 보다 편히 사는 자들을 보면

‘나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나?’

부럽기도 하고 낙심도 될 것입니다.

(*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 중요

- ◆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 ‘자기라는 배’에 ‘내 육의 돛’을 달아라.

그것이 ‘인생의 노’를 저으면서 고생하지 않고

힘 안 들이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길이다.

- ◆ 너의 중심에 ‘나 성자와 내 육’을 모시고 살아라.

그것이 ‘돛을 다는 것’이고,

힘을 안 들이고 쉽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.

그것이 ‘운’이며 ‘횡재하는 것’이며,

‘밭에 감춰진 보화’다.

- ◆ 이 말씀이 ‘꿈’ 대신 너희에게 주는 ‘횡재하는 운의 말씀’이다.

(하고,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밭에 감춰진 보화>를 찾고 싶습니까? 얻고 싶습니까?

그렇다면 <밭에 감춰진 보화>를 찾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<밭에 감춰진 보화>를 얻으려면,
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‘밭’을 사야 됩니다.

그래야 ‘그 속에 묻힌 보화’도 자기 것이 됩니다.

(* <밭>은 무엇이고, <보화>는 무엇일까요?
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◆ <밭>은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
그 시대의 하늘 뜻을 이루려고 쓰는 자’입니다.

그가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육’이니
<밭 역할>을 해 줍니다.

- ◆ <그 속에 묻힌 보화>는 ‘성자’ 이십니다.
그리고 성자와 하나 된 절대신 ‘하나님과 성령님’입니다.

- ◆ **밭을 사**라는 것은

-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
-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그를 ‘자기 구원자’로 깨닫고,
- 그를 믿고 그와 일체 되라는 말입니다.

그러면 ‘그’로 말미암아

- 그 속에 묻힌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를 깨내게 되고,
- ‘삼위’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살다가
- ‘휴거’로 <영원한 천국 황금성>을 상속받게 됩니다.

또한 땅에서도 거액의 보화를 깨낸 자와 같이 잘되고 형통하여
육신쯤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됩니다. (믿습니까? 아멘.) <끝>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이제 성자가 ‘땅에서 할 일’ 을 다 끝내시고 떠나시니,
땅에서 계실 때와는 다르게 <질서>가 바뀌었습니다.

전에는 ‘양쪽 차선’ 을 다 사용했지만,
이제는 ‘한쪽 차선’ 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

전에는 ‘동쪽 문’ 과 ‘남쪽 문’ 을 다 사용했는데,
이제는 ‘남쪽 문 한 곳’ 만 사용합니다.

그 문으로 통하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.

이제는 ‘그 육’ 을 통해서만
도적같이 합당하게 나타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.

(*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 중요

- ◆ 너희는 ‘배’ 다. 내 육은 ‘돛’ 이다.
<돛>은 ‘돛단배의 날개’ 와 같다.
<돛>을 달아야 ‘세상 바다’ 에서 날면서 산다.

<주의 돛>을 달아야 힘들지 않게 편하게 전진하며
신앙의 항해, 휴거의 항해,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. <끝>

- ◆ <돛>이 어떻게 생겼는지, 잘 보기 바랍니다. <영상6 - 그림>

(* 여기서 선생님이 그린 돛단배의 돛을 보여 주고,
돛만 따로 떼어서 보여 준다.)

(한국 사람, 일본 사람, 중국 사람, 한자를 아는 사람은

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?

뜻은 ‘主’ 모양으로 생겼다. ‘主(주)’가 누구냐?)

성령의 눈과 귀가 있는 자는 보고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이 급절한 시대에 ‘뜻’ 없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
<머나먼 인생 길, 휴거 길>을 못 갑니다.

◆ 올해도 ‘개인 부족으로 인한 환난’ 이 있기에
모두 ‘뜻’ 을 달고 출발해야 됩니다.

그냥 ‘노’ 를 저어서 가다가는 얼마 못 갑니다.

◆ 힘이 센 장사라도
‘뜻’ 없이 ‘노’ 를 져고 살면 힘이 없어서 얼마 못 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 중요

◆ 주(主)는 ‘생명의 뜻’ 입니다.

‘주의 뜻’ 을 달고서
<전도>도 하고 <각종 사명>을 하며 외쳐야 됩니다.

◆ 주(主)는 ‘희망의 뜻’ 입니다.

‘주의 뜻’ 을 달아야

‘경제, 건강, 각종 지혜와 지식’ 을 가지고
‘목적’ 을 이루면서 보람차게 살아갑니다.

◆ 주(主)는 ‘진리의 뜻’ 입니다.

‘주의 뜻’ 을 달지 않고 가면
‘비진리의 뜻’ 을 달고 <사망의 인생 바다>로 갑니다.

◆ 주(主)는 ‘휴거의 뜻’ 입니다.

‘주의 뜻’ 을 달아야
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 를 모시고
‘육’ 도 ‘혼’ 도 ‘영’ 도
‘성령의 뜨거운 바람’ 을 타고서
‘하나님의 뜻’ 을 향해 편히 가면서
시대를 희망으로 살아가며 <휴거>를 이룹니다.

◆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‘주의 뜻을 뺀 자’ 입니다.

그러니 노를 저으면서, 파도와 싸우며 고생하며 가야 됩니다.
가다 보면, 파도에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8>

◆ 성자는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<주(主)>라는 뜻을 ‘뇌’ 에 깊이 꽂아라.

그래야 그를 통해 ‘나 성자’ 도 제대로 안다.

그를 제대로 가르쳐라.” 하셨습니다. <끝>

- ◆ <주(主)>라는 뜻을 ‘마음과 생각의 중심’에 쫓고 ‘생활’에 쫓고 인생을 쉽게 편히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!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9>

- ◆ 오직 ‘주의 뜻’만 달아야 됩니다.
나머지는 ‘뜻을 쫓고 쫓고 쫓고’입니다.

- ◆ <자기>라는 배에 <주>라는 뜻을 달아야 튼튼하고,
화평과 사랑이 넘쳐 서로 하나가 됩니다.

그로 인해 ‘전도’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,
<교회>라는 배에 ‘많은 생명들’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. <끝>

<잠시 쉬었다가>

(* 오늘 핵심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들어 볼까요?) <영상10> 중요

- ◆ <구원자>는
지구 세상의 73억 명을 태운 ‘지구’라는 배의 ‘뜻’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이 <뜻>을 가지고 ‘지구’를 조종하십니다.

- ◆ <뜻>은 ‘세상 바다에 묻힌 보화’입니다.

그로 말미암아 ‘자기가 원하는 것’을 구하고,
‘감춰진 인생 보화’를 찾게 됩니다. <끝>

- ◆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
‘주(主)라는 뜻’ 을 단 자만
<인생>을 쉽게 편히 살고,
<휴거>도 힘들지 않게 이루고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모시고
<천국 황금성>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.

- ◆ 선생은 성자에게
‘휴거된 영들’ 은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물었습니다.

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휴거된 영들은 이제 <황금성>에 가는 자격자가 되었다.
고로 육신이 지상에서 사는 것과 상관없이
이제 자유롭게 <황금성>에 드나들게 된다.

<휴거 잔치>는 세상 혼인 잔치처럼
‘하루’ 가 아니고 ‘한 기간’ 이라서
‘한 기간’ 을 두고 <황금성>에서 ‘휴거 잔치’ 를 하게 된다.”

하셨습니다.

<전환>

- ★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<올해 황제하는 꿈>은 무엇이나?
배에 돛을 달라는 말씀이다.

<뜻>은 ‘내 육’이다. <배>는 ‘너희 각자’다.
내 육으로 말미암아 나 성자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.
이제 내가 손을 놓았으니, ‘내 육의 손’을 잡아라.

- ◆ <뜻>은 ‘배의 힘’이며,
‘공중의 독수리의 날개’와 같으며
‘차의 엔진’과 같다.

<나 성자>와 <나의 육>은 ‘너희의 뜻’으로서
너희의 ‘힘과 능력’이며 ‘운’이다.

뜻을 달아라! 높이 달아라!
그래야 세상 환난과 고통을 이긴다.

- ◆ 나 성자가 올해 진실로 ‘운’을 쏟아 주기 위해
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한다.

섭리의 배들아. 꼭 뜻을 달아라.
뜻을 안 단 자들은 출발을 안 시킨다.

뜻을 달지 않은 저 배들을 보아라.
힘들어서 파도에 밀려나 울고 있다.

- ◆ 뜻을 달지 않고 출발하려는 배들은
그동안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져 있던 자들이다.

나 성자가 너희를 부르니,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뜻을 달아라.

그리함으로 **이성 유혹**과 **세상 유혹**을 이기고,
자기중심과 **자기 생각**을 몰아내라.

◆ 이 시대의 지혜자가 누구냐? ‘뚫’ 이 무엇인지 찾고 단 자다.

◆ <뚫 없는 섭리 인생>은
파도치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
2015년 한 해 동안
또 **이성**에 빠지고 **각종 유혹**에 빠져 **부끄러운 짓**만 하게 된다.

◆ 네 소유를 다 팔아서 ‘뚫’ 을 사라.

<뚫>을 사야 그로 인해 ‘그 속에 묻힌 나 성자’ 를 찾고,
나 성자와 일체 되어 얻고 누리게 된다.

◆ 사람들이 ‘나 성자와 분체’ 가
그리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니,
세상 사람들이 ‘**생명과 같이 귀하게 쓰는 존재물**’ 을 두고
비유하여 말하였느니라. (하고,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이
‘**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**’
‘**생명과 같이 귀히 쓰는 것**’ 으로 비유하여
<주>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면,
거부감 없이 말씀을 듣고,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.

◆ <주>를 증거할 때는 ‘사명의 핵’ 을 감추고
뚫을 달라는 말씀처럼 ‘비유’ 로 하는 것이 ‘말의 지혜’ 입니다.

◆ 예수님도 <어부>에게는

어부가 최고로 생명시하고 귀히 여기는 ‘그물’로 비유를 들어
‘자신’을 가르치셨습니다.

또한 <보화를 좋아하고 생명시하는 자들>에게는

‘천국’을 ‘밭에 묻힌 보화’로 비유하여
‘천국’을 깨닫게 해 주고 귀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.

또한 ‘길과 생명’으로 비유를 들어 ‘자신’을 깨닫게 하셨습니다.

또한 <병든 자들>에게는 ‘의사’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
“네 영을 살리는 의사가 나다.” 하셨습니다.

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따를 후에
“그것이 나다. 너를 구할 자가 나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

◆ 이 시대도 ‘그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물’이나

‘그 사람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’로 비유를 들어
<구원자>를 가르쳐 주고 증거해야 됩니다.

그리고 ‘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’이며

‘그 사람보다 더 영원히 너를 사랑해 줄 귀한 자’라고
비유해 주며 <말씀>을 넣어 줘야 됩니다.

◆ 꼭 <핵>은 감추고

‘귀한 사람’이나 ‘귀한 존재물’로 비유를 들어
‘구원자’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는 것이 ‘지혜’입니다.

- ◆ ‘저마다 좋게 인식하는 것’ 이나
 ‘매일 보고 귀히 사용하는 것들’ 을 말해 주면서
 ‘말씀’ 을 가르쳐 줘야
 - 말씀을 좋게 인식하고 말씀이 뇌에 쑥쑥 잘 들어갑니다.

- ◆ <진리>가 ‘돈’ 같이 소중하고 유익을 주니,
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
 영과 육이 다 잘되는 ‘이 시대 진리의 말씀’ 을 배우라고 하면서,
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얻는지 보라고 하며 ‘희망’ 을 줘야 됩니다.

 증거하는 대로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람의 <인식>은 참으로 중요합니다.
 인식을 뒤엎어야 ‘진리’ 가 들어갑니다.
 고로 인식을 뒤엎으려면 ‘합당한 비유’ 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.

- ◆ <육 사랑>을 좋아하는 자에게
 “육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권태가 있다.
 육의 사랑으로는 얻지 못하는 ‘황금 같은 사랑’ 이 있다.
 너도 배우고, 그 사랑을 해 보아라.” 하고
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며 희망을 주면서
 무한한 전능자 신의 사랑, 영의 사랑, 배의 뜻의 사랑을
 가르쳐 줘야 됩니다.

하나님과 성자께서 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신 참된 진리’ 로
 그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며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.

<똥을 단 배>의 ‘똥’ 같이 필요하다고 인식시키면서,
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.

그리고 <육적 사랑>도 <영적 사랑>으로 행하면
1000배, 10000배 더 느끼고 가치 있고,
육도 영도 건강하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.

<지혜의 비유>로 설명을 잘해 줘야
‘그릇된 인식의 배의 똥’을 돌리게 됩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은 섭리사에 온 지 20년이 되도록
‘선생’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는데,
<2014년 크리스마스의 장편 설교>를 듣고
<시대>가 바뀌면 ‘말씀’도 ‘사명자’도 바뀐다는 것을
확실히 인식했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.

- ◆ <시간>이 가면 ‘밤’이 ‘낮’이 되고,
<시대>가 가면 ‘그 시대 사람’으로 바뀌고,
‘건물’이 바뀌고, ‘차’도 바뀌고,
‘아들’이 ‘아버지’가 되고,
‘어린 딸’이 결혼하여 ‘엄마’가 되고,
<시대>가 더 가니 ‘엄마’가 ‘할머니’가 되고,
<시대>가 더 가니, ‘할머니’가 죽듯이,

<시대>가 가면 ‘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구원자’도
바뀐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.

선생은 10대에 이 진리를 깨닫고

<새 시대의 것>을 배우고 믿고 따르니 <시대 사명자>가 되었습니다.

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

‘빠른 구름’, 곧 ‘빠른 자’를 쓰십니다.

◆ 전도할 생명들이 많은데

<설명>을 잘하고 <말>을 잘하는 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.

◆ 성자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해 줘야

귀에 면봉을 끼우듯,

<말씀>이 상대의 마음에 쏙~ 시원하게 들어갑니다.

<전환 - 말씀 마무리>

*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**뜻을 달라라.** - 이 말씀은

성자께서 <꿈 대신 주신 말씀>으로

<올해 최고의 말씀>이며,

<1년 동안 최고로 잘되는 방법의 말씀>입니다.

12월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.

그래야 **꿈**이 이루어지고,

보화도 얻고, **행복**도 얻고, **보람**도 누리고,

사랑도 **지혜**도 **운**도 옵니다.

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.

- ◆ 올해는 ‘자기 부족한 것’ 을 채우지 않고
‘자기 할 일’ 을 안 하는 만큼 사탄이 칩니다.

고로 반드시 ‘부족한 것들’ 을 채우며
‘자기 할 일’ 을 꼭 해야 됩니다.

‘똥’ 만 ‘자기라는 배’ 에 달면 됩니다.

- ◆ <똥>은 ‘성자의 육’ 입니다.
‘성자의 분체’ 이며, ‘성자의 구원의 심부름꾼’ 입니다.

이제 성자가 떠나시니,
‘그 육, 분체, 심부름꾼’ 을 스마트폰 쥐듯 꼭 쥐고 다녀야 됩니다.
그래야 성자와 통합니다.

- ◆ <똥>을 달면, ‘똥’ 이 **방향**을 잡고 배를 몰고 갑니다.

그러나 자기가 ‘노’ 를 저으면,
자기 생각과 **자기중심**으로 살게 됩니다.
그러다 결국 **방향**을 잃고 힘들어합니다.

- ◆ <똥>을 달면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‘성령의 바람’ 을 일으키시고
능력과 권세로 힘껏 역사하여 이끌고 가십니다.

그래서 “삼위일체가 육으로 쓰시는
‘구원자의 똥’ 을 달아라!” 한 것입니다.

절대 말씀에 순종하면, 절대 잘되고 형통합니다.

◆ <구원자>를 알아야 됩니다.

<구원자>를 아는 만큼 구원해 주고,
아는 만큼 형통하고,
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,
아는 만큼 휴거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1> 중요

◆ <구원자>라는 ‘문’을 통해서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결되어 ‘휴거 차원’으로 올라갑니다.

항상 ‘육’을 통해서 ‘영의 세계’로 갑니다.

◆ <성자의 육>이 하듯이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성사됩니다.
믿기만 하고,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.

그림을 그리는 자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그림을 그리면,
그 그림을 보고 그려야 그리는 대로 그려지지,
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.

◆ 스마트폰이 연결되면,
‘신호’가 오고 ‘화면’이 나오고 ‘소리’가 들립니다.

자기가 전화를 걸어야 통하듯이,
자기가 <성자의 육>과 교통해야 느껴집니다.

그것이 일체 된 것입니다.

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. <끝>

- ◆ 선생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통합니다.

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니, 안 통하는 것입니다.

본인만 찾고 부르면, 통하게 됩니다.

실제로 해야 해집니다.

실제로 생활 속에서 찾고 부르는 자는

<주의 뜻>을 ‘뇌’에 꽂고 ‘생각’에 꽂은 자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2> 중요

- ◆ <땅의 핵>인 ‘보낸 자의 뜻’을 달아야

<하늘의 핵>인 ‘성자의 뜻’도 달게 됩니다.

- ◆ <핵>은 ‘핵폭탄’과 같습니다.

<보는 데 핵>은 ‘눈’이며, ‘마음의 눈, 영의 눈’입니다.

- ◆ 바다의 <배의 핵>은 ‘뜻’입니다.

땅의 <자동차의 핵>은 ‘엔진’입니다.

공중의 <독수리의 핵>은 ‘날개’입니다.

<이 세상과 천국의 핵>은 ‘삼위일체’이며 ‘구원자’입니다.

- ◆ <핵>은 ‘답’입니다. ‘주인’입니다.

<핵>을 알고 <핵>과 일체 되면, 성공합니다.

- ◆ 성자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너는 ‘뜻을 단 큰 배’다.

수영한 후에 지쳐서 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
배에 태우는 자가 되어라.

지쳐 방향을 잃고 다니다가는 바닷물을 먹고 죽으니, 잘 보아라.

또한 악인이 배에 기어오르는지 잘 보아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‘핵심자, 주’ 만 찾고 믿으면 이깁니다.
인생의 희망은 ‘핵심자’입니다.

- ◆ <이 시대 하늘의 운>은 ‘구원자’입니다.

그는 ‘인생의 뜻’입니다.

그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,

그 뜻을 ‘자기 마음의 중심’에 꽂고, 그를 꼭 붙들고

<섭리의 항해>를 하고, <휴거의 항해>를 하기 바랍니다.

그러면 <인생의 보화>를 찾게 되고, <인생의 운>을 타게 되고,

휴거되어 <영원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>가 됩니다. <끝>

<전환>

(* 오늘 말씀 멋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.

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

이 영상과 함께 <성자의 말씀>을 들으면서

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) <영상13> 매우 중요

- ◆ <뜻>은 ‘독수리의 날개’ 와 같습니다.

- ◆ <독수리>는 ‘무기’를 **열다섯 개**나 지니고 다닙니다.

철창(鐵槍) 같은 발톱 여덟 개,
철창 같은 부리 한 개,
철 몽둥이 같은 좌우의 날개 두 개,
레이더와 같은 눈 두 개,
초인 같은 힘,
그리고 시속 180km로 **빠르게** 나는 **속도**가 무기입니다.

고로 독수리는 ‘공중의 왕’입니다.

- ◆ 하나님, 성령님, 성자, 그리고 주는 ‘독수리와 같은 뜻’입니다.

<자기>라는 ‘배’에 ‘독수리와 같은 삼위일체와 주의 뜻’을 달면,
인생의 항해, 신앙의 항해, 섭리의 항해, 휴거의 항해,
2015년의 항해는 문제없습니다!

- ◆ **뜻을 달아라!**

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
<성삼위의 큰 축복>과 <운>을 부어 줍니다.

<축 도>